

## 전통수의침구학

##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과 복모혈腹募穴

강 무 속

동물세종원 금손이동물병원 원장

수의외과학 석사

camus22@hanmail.net



## 심포心包的 개념과 기능

심포는 심포락이라고도 하는데, 12경락에서는 다른 5장 6부와 같이 수궐음심포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에 대한 개념인 장부론에서는 장과 부 심지어 기항지부로도 인식하지 않고, 심장에 부속되는 기관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있다. 심포는 한자의 뜻 그대로 심장을 싸고 있는 주머니라 할 수 있으며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해부학적으로는 서양의학의 심낭(Pericardium)이라는 구조와 같지만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전통수의학 서적에서 심포에 대한 서술이 적어 한의학의 내용을 인용하여 심포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심포라는 장기의 구체적인 해부학적 모습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전통의학 초기와는 다르게 근현대에 와서는 심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현재에는 심포는 심을 싸고 있는 막이면서,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심포에 대한 서술은 시기적인 차이를 보여왔다.

《황제내경》이후 《난경》까지의 서술을 보면, 심포는 삼초와 표리관계를 이루는데, 삼초와 심포 두 장기는 유명무형有名無形-이름은 있으나 형태는 없는 장기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후, 심포의 구체적인 형태 유무와 존재 위치에 대한 서로 다른 서술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내용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① “심포는 전중이다”라는 주장으로 가슴부위의 일정 부위를 가리키는 것, ② 심포는 심을 싸고 있는 막이라는 주장, ③ 심포는 자궁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

이 있게 된 연유는, 다른 5장 6부와는 다르게 단순히 심장의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구조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해부학적 형태와 기능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는 심포를 유형의 장기, 즉 심을 싸고 있는 막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히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정도의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심장이 가지고 있는 정신사유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로 이해되고 있다.

심포의 심은 심장의 심과 같이 '마음, 심장'이란 뜻이고, 포는 '겉을 둘러싼 막'을 뜻하는데, 결국 심포란 '심'의 겉을 둘러싼 막'이 된다. 그래서 심포의 기능은 심과 관련이 깊고, 의식과 정신작용 및 정서활동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심'의 겉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심을 보호하고 그 기능을 돕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에 어떤 병이 들려고 하면 먼저 심포가 방어 하고 자신이 병들기도 한다.

임상적으로도, 심포에 병이 들면 의식이 혼미 해지고 헛소리를 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증세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경우 심포에 연결된 경락(심포경)을 치료하게 된다.

임상에서 심포가 치료목표가 되었던 것도 그리 오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한의학에서 열성질환을 치료하였던 온병학이 대두되면서 심포의 병변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치료법도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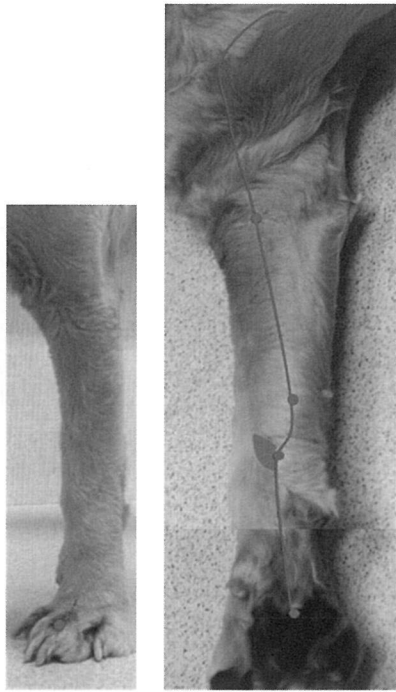


그림 1. 전지의 내측.

**수궐음심포경 手厥陰心包經**

수궐음심포경은 전궐음심포경이라고도 하는데, 심포에 소속되고, 삼초와 연결돼 표리관계를 이룬다. 경락의 흐름을 보면, 흉강에서 시작하여 심포心包에 귀속되고 횡경막을 통과하여 삼초三焦로 이어진다.

다른 분지는 흉부를 따라 옆구리로 가서 앞쪽으로 쳐드랑이 아래에 이르러 앞발 안쪽 중간을 통과하여 가운데 발가락 끝에서 멈춘다. 한편 발바닥 위쪽에서 갈라진 분지는 수소양삼초경으로 이어진다.

사람의 수궐음심포경에는 9개의 혈이 사용되고, 소동물에게는 5개 정도의 혈을 사용된다. 실제 임상에서는 곡택혈, 내관혈, 노궁혈이 상용되는데 유연과 구토, 흥통, 경련, 정신질환에 자주 사용되며, 수소음 심경의 경혈들과 같이 사용하여 정신신경계 질환과 흥통 등에도 자주 응용된다.

**복모혈 腹募穴**

장부의 기가 흉복부의 특정한 부위에 모이는 혈을 모혈募穴이라고 하는데, 흉복부에 있기 때문에 등쪽에 있는 배수혈과 대비되어 복모혈이라고도 한다.

<b>곡택 PC-3</b>	한자풀이 : 굽은곳의 연못합혈	
	<b>혈자리 위치</b>	<b>효능</b>
	앞다리굽이관절에서 상완두갈래근 힘줄의 내측	심통, 구토, 설사, 주관절염, 심장질환, 기관지염

<b>내관 PC-6</b>	한자풀이 : 안으로 출입하는 문낙혈, 팔맥교회혈	
	<b>혈자리 위치</b>	<b>효능</b>
	전지의 내측면으로 손목관절과 척택(PC-3)의 1/6 위치.	구역, 구토, 신경증, 불면증, 위통, 흥통, 팔목건초염, 횡달, 공포증, 간질, 인후통, 정신질환, 천식, 중풍, 딸국질, 전간, 어지러움

<b>노궁 PC-8</b>	한자풀이 : 손바닥의 궁혈	
	<b>혈자리 위치</b>	<b>효능</b>
	앞발바닥면의 패드에서 2~3번째 앞발허리골사이.	구창, 중풍혼미, 구토, 흥통, 연하근란, 구강염, 해소기침, 앞발허리골사이.

복모혈은 장부와 거리가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장부의 생리병리반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장부에 이상이 있을 때 가장 빠르게 나타남으로 이곳을 먼저보고 과민반응이 있는 곳을 알아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간경락에 기가 너무 많이 흐르면 간경락의 모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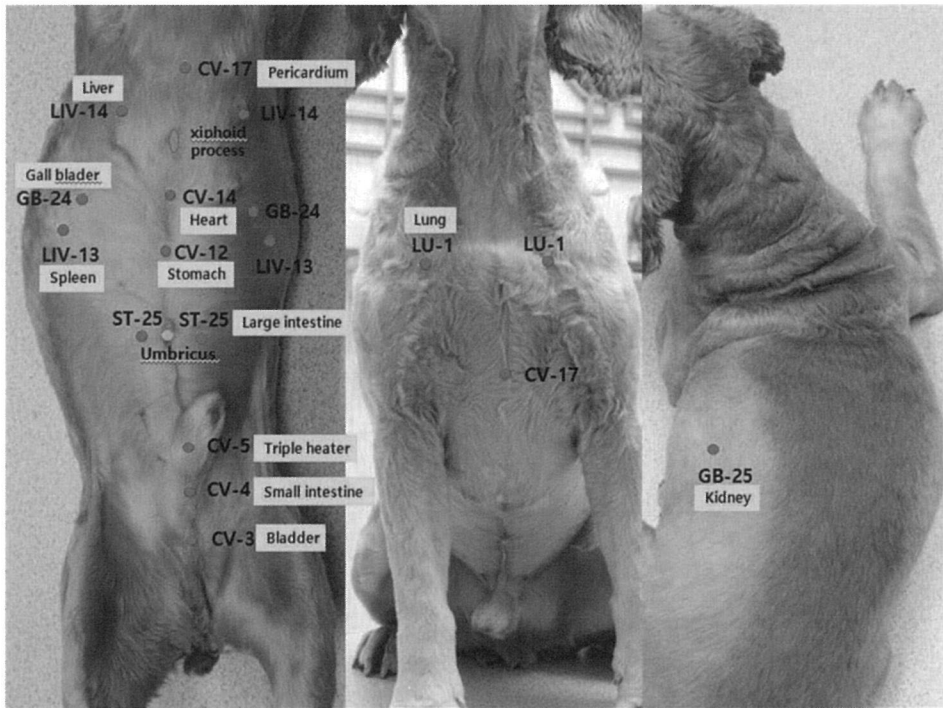


표 1. 장부와 복모혈

폐경	대장경	위경	비경	심경	소장경	방광경	신경	심포경	삼초경	담경	간경
중부	천추	중완	장문	거결	관원	중극	경문	단중	석문	일월	기문
LU-1	ST-25	CV-12	LIV-13	CV-14	CV-4	CV-3	GB-25	CV-17	CV-5	GB-24	LIV-14

인 기문혈에도 기가 너무 많이 모여서 기문혈을 눌러보면 통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 반대로 간경락에 기가 너무 적게 흐르면 기문혈에도 기가 너무 적게 모여서 기문혈이 둔감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영문으로는 모혈을 'Alarm point'라고 번역을 했으며, 해당 장부의 모혈은 해당

장부의 진단과 치료에 모두 응용될 수 있지만, 특히 진단에서의 가치가 더 높은 혈이다.

폐, 간, 담, 비장, 대장, 신장의 모혈은 쌍으로 존재한다. 혈자리의 위치는 해당경락의 소개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

